



LG 스타일러 | Objet Collection

LG ALL NEW 스타일러

매일매일 의류관리는 선택 아닌 필수

CHECK POINT

- ✓ 새로운 히트펌프 방식으로 시간 단축 및 에너지 저감 기술 반영
- ✓ 다이내믹 무빙행어의 트루스트 방식으로 강력하고 섬세해진 동작
- ✓ 듀얼히팅 트루시스템의 듀얼히터로 소재에 맞춰 알맞은 스팀량 분사
- ✓ 빌트인 고압 스팀마로 외출 전 빠르고 쉽게 의류케어
- ✓ 자동환기 시스템으로 문을 열지 않아도 보송하도록 의류케어와 공간 제습케어
- ✓ 바지를 당겨서 누르는 폴더 형태로 구김은 줄이고 핏은 살리는 바지관리기



LG ALL NEW 스타일러로 또 한 번 앞서는 LG전자

LG전자가 2024년 1월 의류 구김 제거에 탁월한 핸디 스팀마가 내장된 'ALL NEW 스타일러 오브젝트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에 선보인 신제품은 스타일러 최초로 내부에 핸디형 스팀마리미인 빌트인 고압 스팀마를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스팀마를 통해 외출 전 쉽고 빠르게 셔츠의 구김까지 깔끔하게 다림질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공인시험인증기관인 KATRI 시험연구원 테스트 결과, 구김이 있는 셔츠에 스팀마를 2회 왕복했다면 구김이 초기 대비 2배 이상 완화됐다. LG 스타일러의 독자 기술인 무빙행어는 다이내믹 무빙행어로 업그레이드됐다. 최우로만 움직이던 것과 달리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트루스트 모션이 추가돼 더욱 섬세하고 강력하게 의류를 관리해 준다. 미세먼지 코스는 옷을 1분에 최대 200회 털어주던 것 대비 350회까지 털어줘 비염민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미세먼지를 골고루 없애준다.

LG전자는 스타일러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 및 유로 개관을 통해 효율을 한층 더 높였다. 표준살균 코스는 79분에서 64분으로, 표준코스는 35분에서 29분으로 작동시간이 줄었다. 에너지 사용량도 표준코스 기준 377Wh에서 350Wh로 약 7% 저감했다.

문을 열지 않아도 보송한 의류케어 & 공간 제습케어

LG ALL NEW 스타일러는 제품 안팎의 공기를 자동으로 순환시키는 자동환기 시스템을 적용해, 스타일러를 열지 않아도 내부에 남은 습기를 제거한다. 제습 기능은 더욱 편리해졌다. 문을 열고 제습했던 기존과는 달리 문을 닫은 채로 제습이 가능하고, 하루 최대 10회까지 제습해 스타일러가 설치된 드레스룸 등을 쾌적하게 한다.

LG ALL NEW 스타일러는 기존 스타일러의 차별화된 성능은 그대로 계승했다. 물을 끓여 스팀을 만드는 히터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나눠 스팀 분사량을 더 정교하게 조절하는 듀얼히팅 트루시스템을 갖췄다. 캐시미어 등 고급 의류를 관리하는 코스는 1단 히터만 사용하는 등 스팀량을 미세하게 조절 관리할 수 있다. 트루시스템은 탈취와 살균에도 효과적이다. 스타일러의 위생살균 코스는 인터텍 실험 결과 녹농균, 폐렴균, 대장균 등 11종의 유해세균을 99.99% 제거한다. 바이러스 코스는 인터텍 검증 결과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등 11종의 바이러스를 99.99% 없앤다. 최근에는 KATRI 시험연구원 실험 결과 스팀살균 코스 이용 시 빈대까지 살충하는 효과를 검증했다.

CEO INTERVIEW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LG ALL NEW 스타일러가 차별화된 핵심 부품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대한민국 혁신상 융복합 혁신상 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LG전자는 2011년 세계 최초 의류관리기라는 품격을 선보이며 점점 시장을 키웠으며, 이후 해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춘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빙행어, 듀얼 트루시스템, 빌트인 고압 스팀마 바지관리기, 자동환기 시스템과 같은 신기술을 선보이는 등 끊임없이 의류관리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점점 더 세분화하는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업그레이드하고, 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LG 앱(LG UP) 가전을 통해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